



한국수문협회에 제언

Marvin E. Von Seggern

<한강유역합동조사단 사업관리인>

M. E. Von Seggern

1. 출생 및 가족상황

- 가. 출생 : 1910. 6. 15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출생
 나. 주소 : c/o Bureau of Reclamation Department of the Interior Washington, D.C. 20240
 다. 가족상황 : 부인과 1남 1녀
 장남 : 의사(워싱턴주 씨애틀시 거주)
 장녀 : 회사원(유립 거주)

2. 학력 및 경력

- 1933 네브라스카대학 졸업 토목학사
 1934~35 : 미국 공병단(Corps of Engineers)
 기사 : 미조리강 하도개수사업 종사
 1935~38 : 네브라스카주 공공 전력 및 관개부문
 현장 및 설계업무에 종사
 1939~40 : 미국 산림국 수문기사... 콜로라도주, 와이오밍주, 남다코타주 및 네브라스카주담당
 1931~46 : 미국 공병단 : 알라바마주 지구의 유역
 개발계획 수립업무에 종사
 1947~61 : 개척국(美.S.B.R.), 남다코타주, 미조리-오아헤 계획 사무소에서 미조리 강유역수
 자원 개발계획 수립업무에 종사
 1951~55 : 개척국, 남다코타주 미조리-오아헤
 계획사무소 사업관리인
 1966년 이후 한강유역합동조사단 사업관리인.

3. 저술 및 포상

- 가. 저술(著述)

- (1) 부동산류 방정식의 적분에 관하여 : 미국 토목
 학회지 115호(1949)중 수록논문 제 2391번
 (2) 관개용 회수수(回收水)의 수질예측에 관하여
 1962년 캔서스시에서 열린 미국 중부지방 관개
 배수에 관한 토목학회 회의에 제출
 (3) 오아헤 단위지구에 대한 배수계획에 관하여 :
 1965년 몬타나주의 전유 역개발방안에 관한 토
 목학회 회의에 제출
 나. 포상(褒賞)
 1951년전기 "부동산류 방정식의 적분에 관한 논문."
 으로 미국 토목학회 J. James R. Crowe 메달
 수상.

4. 참여하고 있는 전문학회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미국
 토목학회)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전문기술자 협회)
 South Dakota Engineering Society (남다코
 타주 기술자 협회)
 United States Committee of the Interna-
 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국제 대연
 계협회 미국위원회)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ing(전문기
 술사 등록협회)

한국 수문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축하와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구는 기본적인 자연자원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한국사회에 공헌할 가치 있는 기구입니다.

수문학은 수자원 개발에 근원(根源)을 이루는 과학이며 수자원은 모든 자연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물은 사람에게만 말 할 것도 없고 가장 조그만 단세포에 이르기 까지 모든 형태의 생물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생활도 물에 의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수자원의 이용도에 따라 그 척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부강한 국가로 발전하려면 수자원을 고도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한국은

년평균 1,150mm의 강우로 약 1,100억^m의 수량을 매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400억^m는 증발산 또는 지하로 침투되고 나머지 약 700억^m가 유효한 지표수로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강우량은 약 750mm로서 한국의 1,150mm는 자연이 주는 큰 혜택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한국의 수자원량은 오히려 작은 감이 있습니다. 700억^m라는 양은 한국인 연간 1인당 2,300^m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은 일본이 4,300^m이고 미국이 13,100^m입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2,300^m중 현재 조절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량중 약 2/3가 년중 하계 3개월 동안에 편재, 홍수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인당 약 230^m의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양이며 한국이 부강해 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증가하여야 할 양입니다. 일본의 물 소비량은 1970년에 연간 1인당 약 1,000^m에 이르는 것이 예상되며 미국의 그것은 이미 1965년도에 2,200^m에 달하였습니다.

한국의 지표수는 그 대부분을 저수지에 저류하여 년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유

히량 전부를 완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불경제적인 것입니다. 여하간제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는 상시 사용 수량을 최대한 보장 공급할 수 있도록 주의깊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자원 개발계획은 또한 타 부문의 개발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량의 물이 소요되는 어떤 화학공장을 건설한다고 할 때 여기에 적절한 용수공급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이 공장은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용수수요가 없는 한 대용량 용수공급원을 작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은 경제적인 모든 부문에 걸쳐 균형이 잡히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한국수문협회가 발족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수자원을 고도로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진할 책임 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협회, 협회임원 및 회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부디 한국 장래의 수자원개발에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

☆

☆

물 과 繁榮

물을 所重히 하고 물을 高度로 利用하는 나라는 繁榮이 約束된 나라다.

美國의 T.V.A. 印度의 DVC. 이스라엘의 네게부……沙漠開發事業은 汎世界的 水資源開

發의 「모델·케이스」, 우리나라의 豊富한 물은 農業, 工業, 生活에 쓰이고도 남아도는 甚大한 量이기에 우리는 繁榮의 未來像에 微笑를 짓는다.

※ ※ ※

滿水된 淸平潭은 發電뿐만 아니라 觀光養魚에도 比重이 크다.